

밀어(*Rhinogobius brunneus*)와 민물검정망둑 (*Tridentiger brevispinis*)의 흡반 구조에 관한 연구

김택영^{1,2} · 손성원¹ · 최병진² · 박창현³

¹경남대학교 생명과학부, ²한국자연환경연구소, ³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 연구는 좌·우의 배지느러미가 양쪽으로 합쳐져서 흡반을 형성하는 망둥어과(Cobiidae) 어류인 밀어(*Rhinogobius brunneus*)와 민물검정망둑(*Tridentiger brevispinis*)의 흡반의 형태 및 구조를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밀어 흡반의 외부형태는 침부는 규칙적인 실타래 모양의 조밀한 굴곡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부와 기저부는 침부에 비하여 조밀하지는 않으나 벌집모양의 규칙적인 구조를 갖는다. 세포의 경계와 세포 표면 내에 이랑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구조물 사이에 점액분비세포(mucous cell)의 개구부(openings)가 다수 관찰되었다. 내부구조는 초생달모양의 지느러미살을 중심으로 조밀한 섬유층과 상피표면을 향하는 방사상의 성긴 탄력성 섬유층과 입방형 또는 원추형 상피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민물검정망둑의 흡반의 외부형태는 침부는 실타래 모양의 굴곡을 가지나 규칙적이지 않다. 중부와 기저부는 밀어와 같이 벌집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조물 사이에 점액분비세포의 개구부가 관찰되었으나 밀어에 비해 적다. 내부구조는 밀어 예서와 같이 지느러미살을 중심으로 조밀한 섬유층이 관찰 되지만 방사상의 성긴 탄력성 섬유층은 관찰되지 않으며 편평상피 또는 다각형의 상피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밀어에 비하여 흡반의 두께가 얇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